

하지만 목구멍을 치받는 오열에 마르그리트는 목소리가  
잘 나오지 않았지. 이 광경에 비르지니도 왈칵 울음을 터  
뜨리며 엄마의 손과 마르그리트의 손을 빈갈아 꼭 쥐면서  
자기 입에, 다시 자기 심장에 갖다 댔네. 그런데 폴의 눈은  
분노로 타올랐고, 누굴 탓해야 할지 몰라 울부짖으며 주먹  
을 짹 쥐고서는 발을 동동 굴렀어. 이 소리에 도맹그와 마  
리까지 달려왔고, 오두막 안에서는 “아아, 부인!

.....

우리 친절한 주인님!

.....

어머니! …울지 마세요.” 같은 고통에 겨운 울음소리 말  
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네. 그토록 따뜻한 애정 표  
현에, 라 투르 부인의 설움은 씻겨나가듯 사라져버렸지.  
부인은 폴과 비르지니를 품에 안고, 대견한 표정으로 아이  
들에게 말했다.

“내 아가들, 너희 때문에 내가 아프지만, 또한 내 모든  
기쁨은 너희가 주는 것이구나. 오오! 사랑하는 아가들아,  
불행은 오로지 저 멀리서 찾아온단다. 행복은 내 주변에  
있는데 말이야.”

폴과 비르지니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, 라 투르  
부인이 평온해지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, 부인을 어루  
만지기 시작했다네. 그렇게 모두가 다시 행복을 되찾았으  
니, 그날의 일은 화장한 계절 가운데 몰아친 비바람에 지